

# 대한설비건설협회,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위기 타개책 강구·추진



원유와 고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난 달 원재료 물가가 80% 가까이 폭등하며 2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자재비와 연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철, 동 등의 금속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철강재, 비철금속 가격이 연말 대비 40% 이상 폭등하였고, 지난 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강관이 5월까지 계속 오르고만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값이 오르고 있는 자재를 제때 구매하지 못해 공사현장은 지금 아우성이다.

철강재와 PVC제품을 주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설비건설업계는 공사원가 부담 가중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값 인상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추진하고 있다.[편집자 주]

▶ 원자재가 급등으로 공사가 부담, 위기 극복 노력

올해 초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이래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유가는 최근들어 130달러를 넘어섰고, 이 추세라면 머잖아 150달러 선도 뚫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원유와 고철 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지난달 원재료 물가가 80% 가까이 폭등하며 2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자재비와 연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철, 동 등의 금속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철강재, 비철금속 가격이 연말 대비 40% 이상 폭등하였고, 지난 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강관이 5월까지 계속 오르고만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강관(100A)의 경우 지난해 말 m당 8천원 대였지만 지금(5월 현재)은 1만6천원 대로, 45% 정도 올랐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값이 오르고 있는 자재를 제 때 구매하지 못해 공사현장은 지금 아우성이다.

철강재와 PVC제품을 주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설비건설업체는 공사가 부담 가중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설비건설업체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더구나 원도급업체의 손실분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하도급업체들은 어디가서 하소연 할 길도 없다.

길게는 2년 전, 혹은 지난 해 계약한 단가로는 최근의 자재가를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등한 자재가격 인상분을 발주자나 일반건설업체로부터 아무런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경영위기에 부도설까지...긴장의 연속

이러한 위기는 부도로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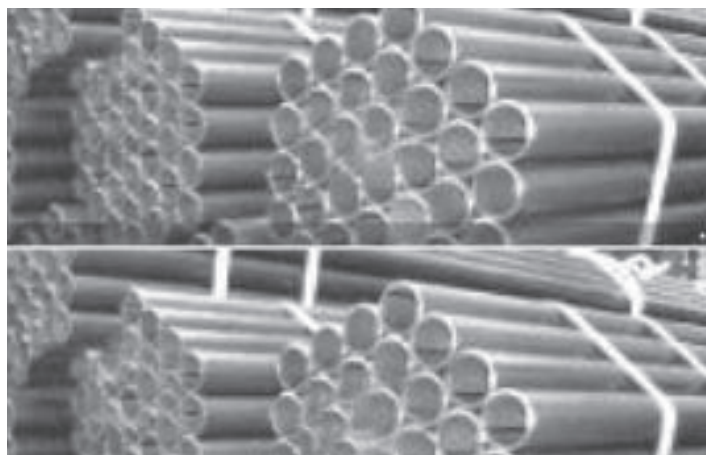
6월 23일 현재 부도난 설비건설업체는 24개사이다. 5월 현재 일반건설업체도 45개, 전문건설업체는 99개 업체가 부도처리 되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건설업체의 부도 증가는 더욱 심각하다. 일반건설업체의 부도에 대한 연쇄 반응으로 하도급업체에 영향이 미쳐 '도미노 부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더 많은 업체가 부도날 것이라는 위기설이 감돌고 있어 설비건설업체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설비건설업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원자재가를 감당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대한설비건설협회 자재값 인상에 따른 대처방안 추진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기에 설비건설업체는 자재값 인상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에 들어갔다.



▲ 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강관이 5월까지 계속 오르고만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설비건설업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는 정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물가인상으로 인한 자재가격을 공사원가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일반건설업체에게는 “협력업체를 위한 특단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조달청에도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실거래가 반영” 등을 건의하였다.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대정부 건의에 대해 정부는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단품물가조정제도(E/S) 시행, 사급자재의 관급자재 전환 등 정부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공사에만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에 한계(2006년 12월 29일 이후 계약분으로서 2008년 5월 1일 현재 계약 이행 중인 공사에 한함)가 있기 때문에 전체 공사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부분으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 일반건설업체에 “협력업체를 위한 특단의 배려” 요청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일반건설업체에 “원·하도급업체의 상생협력으로 우수한 시공품질 확보와 적기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체에 협력업체를 위한 특단의 배려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 “기계설비 및 가스시공 협력업체들의 자재가격 폭등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사급자재의 한시적인 지급자재 전환, 현장 반입자재의 기성인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특정규격 자재의 계약금액 조정, 총액 계약금액 조정)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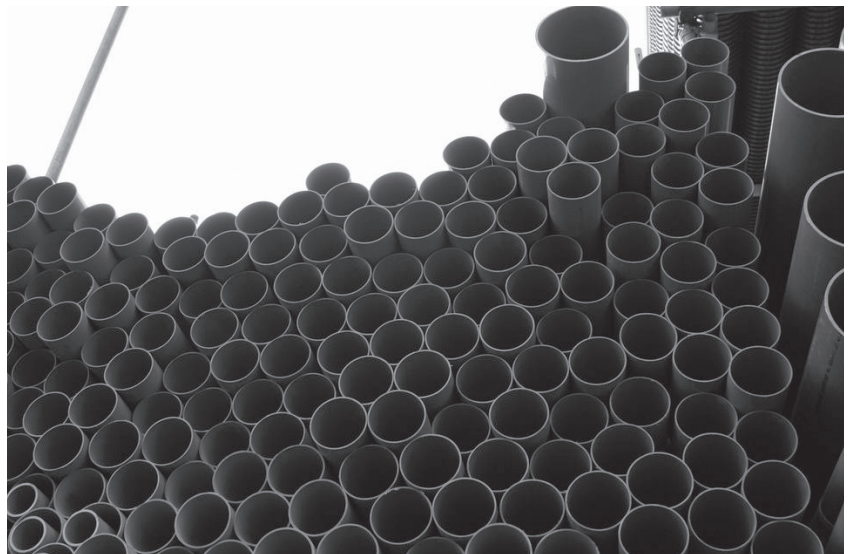
협회는 일반건설업체에 이같은 요청을 하면서 “최근 불고 있는 상생바람은 말 그대로의 전시행정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통을 함께 분담할 수 있는 진정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 달라”고 호소했다.

• 조달청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실거래가 반영” 요청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또 조달청에 최근 급등된 자재가격을 실거래가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가격정보’는 실거래가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더구나 최근의 살인적인 자재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정보’의 거래실례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최고 35%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국내 철강재 및 비철금속재 자재가격이 작년 연말 대비 20~30% 폭등하였고 제품가격은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면서 “이로 인해 철강재를 주로 사용하는 기계설비공사업체는 자재가격 급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 철강재와 PVC제품을 주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설비건설업체는 공사원가 부담 가중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처해 있으며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적자를 감수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철강재류의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 완화를 위하여 ‘철강재 등 가격 급등 자재를 거래실례 가격으로 가격정보지에 반영’ 해 줄 것과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거래실례 가격을 반영’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최근의 자재가격 급등은 알고 있으나 예산증액이 수반되는 관계로 난감한 입장”이라며 대책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 협회, 인상된 자재가격 반영한 공사원가 책정 및 저가투찰 지양 유도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설비건설업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 및 조달청, 일반건설업계에

인상된 자재가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우리협회의 즉각적인 가격인상 요청에 대한 조달청의 소극적인 태도와 일반건설업체도 제 몫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실정”이기에 이러한 현실에 대한 타개책으로 “업계 스스로 저가투찰을 지양하여 이익을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인상된 자재가격을 반영한 공사원가를 책정, 입찰에 임하여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회원사에게 당부했다.

이러한 정책적인 대책 외에도 협회는 “공사현장에서 자투리 자재 보관함을 설치하여 자재의 손실을 줄이는 노력 외에도 실내온도를 상승시켜 에어컨 가동시간 줄이기, 점심 시간에 소등하기 등 작은 것 하나라도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다면 다소나마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주요 설비자재의 구매가격 동향

품 명	규 격	단 위	2007.11 구매가(원)	2008. 5 구매가(원)	상승률(%)
흑강관	100A	m	11,342	16,373	44
백강관	100A	m	8,386	16,182	45
압력백강관(SCH 40)	100A	m	15,892	22,707	43
스테인리스강관	100A×3T	m	35,807	41,496	16
동관(L-Type)	100A	m	69,377	78,381	13
PVC관(VG2)	100A	m	2,189	3,083	41
NO-HUB주철관	100A×3000L	본	29,920	51,320	70
청동게이트밸브	10K×50A	개	38,327	42,552	11